

6월의 기도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 1장 5절)



1.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현충일과 전쟁일을 기념하며 조국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신 이들의 충성을 생각케하고 그들의 희생이 지금의 평화와 경제 대국으로 이끌어갔음을 우리 모두가 알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국충정의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해 우리 정부와 국민이 잊지 않고 그들의 가정에 합당한 보훈을 하게 하시옵소서.

2. 우리의 구원을 예수님의 피로 언약위에 굳건히 세우신 것처럼 오늘날 이 대한민국도 그 옛날 우리 선조들의 피와 아버지들의 희생과 수고 위에 세워진 것을 알게 하옵소서. 지키지 않는 자는 누릴 수 없고 거짓으로 세운 역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자손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이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주시옵소서.

3. 코로나가 물러간 자리에 다시 한 번 선교의 폭발적인 열정이 일어나서 이 땅에 늦은 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고 저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선교지마다 부흥되고 성령의 검과 믿음의 방패를 새롭게 정비하게 하옵소서. 이 열정으로 땅끝까지 달려가며 끝날까지 우리 주님과 승리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선교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4. 우리는 가정 천국을 이루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서로가 더욱 돕고, 더욱 사랑하고, 더욱 지극한 관계로 발전하게 하옵소서. 따라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은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은혜 받은 저희들 주님의 복음전파를 위하여 달려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달 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순복음동경교회, 시가끼 시계마사 목사님, 순복음신안산교회(최용우 목사님), 이태원내과의원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주봉, 최인철, 함석숙님께서 후원해 주셨으며 무명으로 후원해 주신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후원을 위한 계좌안내 :
 계좌번호 181-22-02127-7 (하나은행)
 예금주 : 디시이엠

조용기 목사 특별 메시지

나라를 위해 기도하자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시편 127:1)

우리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만일 우리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열 사람만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의인 열 사람이 없었습니다. 롯은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열 사람조차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과 함께 자기 아내마저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영적인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복을 주셔서 영혼이 잘될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국가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전방에 있는 국군 장병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후방에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일선에서 추위와 더위를 무릅쓰고 총검을 들고 우리를 지켜 주는 우리의 자녀와 형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장병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한편으로는 따뜻한 위문품, 위문편지라도 보낼 수 있는 정성을 가져야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일선 장병들의 사기가 충천하여 민족과 국가를 더욱 열심히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이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피 흘리며 죽어갔던 일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야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민족과 국가와 일선 장병과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그것은 곧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의 젊은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라의 장래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을 파하고 하나님 보좌에 상달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러한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살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DCEM 뉴스레터 구독신청 안내

DCEM에서는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선교사역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 간행물 '뉴스레터(DCEM NewsLetter)'를 제작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DCEM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 또는 정기간행물을 무료로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DCEM에 연락하시면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TEL : (02) 6181-5064 / dcem@davidcho.com

DCEM 현장 르포로 되돌아보는 2002년 해외성회

<아프리카 나이지리아대성회>



▲ 희망을 선포하는 조용기 목사



▲ 올루세군 오바산조 대통령(우)과 조용기 목사



▲ 프레이어 시티를 가득 메운 나이지리아 성도들

아프리카는 아시아 다음으로 큰 대륙이다. 대륙 한가운데 적도가 지나고 있어 무더운 지역이 대부분이다. 아프리카에는 세계 최대의 사막인 사하라 사막이 있다. 사하라 사막을 기준으로 북부 아프리카와 중남부 아프리카로 나뉜다. 북부 아프리카는 백인종이 대부분이고, 이슬람교를 주로 믿는다. 반면 중남부 아프리카는 흑인종이 대부분이고, 민족과 언어, 종교와 문화가 다양하다. 넓은 지형을 가진 아프리카는 자원은 풍부하지만 부정 선거와 독재로 인해 대부분 산업 발달이 더뎠다. 아프리카의 대부분 국가들이 영국과 스페인, 프랑스 혹은 포르투갈 같은 서구 열강의 지배를 받아 아픔과 고난의 역사를 갖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가난과 질병, 부정부패로 얼룩진 어려운 삶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런 아프리카에 희망의 복음이 선포됐다. 2002년 나이지리아에서 열린 대성회는 아프리카 대륙을 성령의 불로 덮었고 아프리카인들을 절망에서 희망으로 이끌었다.

나이지리아 라고스시 프레이어 시티(Prayer City) 광장에서 2002년 8월 9~10일 열린 '조용기 목사 초청 2002 나이지리아 대성회'는 이틀간 무려 2백여만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료된 대성회다. 현지 기독교

집회 사상 최대 인원을 기록한 본 성회 참석자들은 당시 올루세군 나이지리아 대통령의 초청으로 나이지리아를 방문한 조용기 목사의 메시지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며 나이지리아가 축복과 은혜의 땅으로 변하도록 간구했다.

조용기 목사는 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이지리아의 희망이며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강조하고 "하나님께서 나이지리아 성도들의 울부짖는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 성회는 이틀간 10만여명이 상이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했으며 각종 암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고 기적을 증거했다. 또 성회 참석자들은 세계 최대의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조용기 목사의 설교를 듣기 위해 성회 장소에서 아예 잠을 자며 집회에 참석했다. 특히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의 부인이 직접 참석해 조용기 목사의 메시지를 들었으며 "다음 연도에는 한국을 방문하여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또 세계감리교협의회 의장이자 이번 집회 대회장인 선데이 마방 감독도 조목사와 환담했다. 마방 감독은 "영적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설교해준 것에 감사하며 나이

지리아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조용기 목사는 11일 주일에 올루세군 대통령 집무실을 방문해 대통령 내외와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일예배를 인도했다. 올루세군 대통령은 나이지리아를 방문해 자국 국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준 것에 감사의 뜻을 표했으며 대통령 내외와 정부 각료들을 위해 특별 기도해줄 것을 요청했다.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당시 올루세군 대통령은 나이지리아를 영적으로 부강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 조목사를 초청했다고 밝혔다.

아프리카는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정치권의 갈등이 있다. 당시 올루세군 나이지리아 대통령은 독립 후 반복된 군부독재의 외중에 나이지리아의 민주화를 싹틔우는 데 일조한 인물이다. 오랜 세월동안의 식민지 삶과 군부독재 세월은 사람들을 서로 믿지 못하게 만들었고 불신의 장벽만을 높이 쌓았다. 이런 나이지리아에서 이뤄진 조용기 목사 초청 '2002 나이지리아 대성회'는 불행했던 과거와의 인연을 끊고 새로운 희망을 꽃피우는 전환점으로 자리매김했다.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그럴 때 우리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지 않고서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면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망 속에서 생명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2.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라

둘째로, 우리가 마귀의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고 마음을 지키려면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마음에 생명을 공급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매일 매일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끼 식사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묵상해야 합니다. 그냥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지 말고 묵상을 하십시오. 묵상이란 씹혀서 단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중복음의 토대 위에서 서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함을 얻은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거듭거듭 묵상하고 거듭거듭 마음에 확정하고 거듭거듭 시인합니다. 마음에 말씀과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꼭 들어차 있으면 마귀가 절대로 틈을 타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꼭 들어차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생각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3. 절대긍정의 고백을 하라

셋째로,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으로 채웠으면 말씀을 입술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절대 긍정의 고백을 해야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강건해지고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

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막 11:23)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으면 마귀는 절대 긍정에 절대 부정으로 반격을 합니다. 그러나 승리자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결정된 것이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긍정적인 고백을 하면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4. 담대한 믿음을 가져라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의 군대와 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군사로 지원한 사람이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만 2천 명이 집으로 돌아가고 1만 명이 남았는데 그들을 시냇가로 데려가서 무릎 꿇고 물을 마시는 자는 다 돌려보내고 물을 손으로 움켜 쥐는 사람만 택했는데 300 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300명을 통해 이스라엘에 승리를 안겨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사람은 전쟁에서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365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날마다 두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기적을 믿으면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기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잠 4:23)고 하셨으니 오늘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힘차게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잘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붙잡을 것이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시간의 밀물에 그냥 떠내려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잘 지켜서 꿈과 희망이 있는 시간들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루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십시오.

대다수의 사람들은 마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자기 재산은 지킬 줄 아는데, 자기 마음은 지킬 줄 몰라서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으로 그 마음이 병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마음을 지켜서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1. 마귀를 대적하라

첫째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마귀는 늘 거짓말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에서 서 있지 못하면 마귀의 거짓말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마귀는 오늘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렸다”고 거짓말로 속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어 쓰러지는 허약한 존재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에 탐욕을 집어넣어서 죄를 짓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마귀는 부정적인 말로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삶으로부터 마귀를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넣습니다. 만사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늘 분노가 있고 스트레스로 인해 몸과 마음이 병듭니다.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소망을 저버리게 됩니다. 빛은 보지 않고 어둠만 보니까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날마다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삿포로신학교가 일본 부흥 운동의 진원지 역할하길”

지난해 개교 이어 올 제2기 입학식 개최



순복음동경교회는 일본 홋카이도에 있는 삿포로신학교(창립자 조용기 목사, 교장 이영훈 목사, 이사장 시가끼 시게마사 목사)의 2023학년도 제2기 입학식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삿포로신학교는 일본 복음화를 위한 선교사 양성 교육기관으로 조용기(1936~2021)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가 2020년 창립한 데 이어 지난해 개교한 완전기숙사제 신학교육기관이다.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는 지난 11일 삿포로 프리미어 호텔 컨벤션홀에서 열린 삿포로신학교 입학식 예배에서 설교했다. 이 목사는 “주님 앞에 선교사로 새롭게 헌신한 사역자들이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해 일본 전역을 주의 복음으로 뒤덮길 바란다”며 “하나님께서 일본에 향후 10년 동안 1000개 교회와 1000만 성도를 이루게 하실 것이다. 삿포로신학교 학생들이 이 부흥의 중심에 서서 전 열도를 성령

의 역사로 변화시켜 달라”고 전했다.

설교 뒤 이 목사는 삿포로신학교 이사장 시가끼 시게마사 목사에게 신학생을 위한 장학금을 전달했다. 입학식 예배에 참석한 조민제 국민일보 회장은 “아버지 조용기 목사님은 일찍부터 일본 일천만 구령운동에 매진했다”며 “삿포로신학교가 일본 부흥운동의 진원지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축사했다.

시가끼 목사는 “2025년 1기 졸업생부터 차례로 일본 전역으로 파송해 100개 교회 개척을 목표로 삼고 있다”며 “전문적이고 진취적인 선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삿포로신학교가 일본 열도를 성령의 불바다로 만드는 영적 진원지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10일에는 시가끼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순복음동경교회 삿포로성전에서 축복 성회가 열렸다.

이 목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마지막 지상명령은 선교다. 선교는 그리스도인의 존재 목적이자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며 “우리는 이제 복음 전파에서 한 단계 넘어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해야 한다. 예수님과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닮은 제자를 양성하는 일에 힘쓰자. 삿포로에서 배출되는 주의 종들이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거듭나 일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일으키게 될 줄 믿는다”고 말했다.

시가끼 목사는 “삿포로성전이 홋카이도 지역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고 일본선교의 거점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는 순복음동경교회와 해외선교기구 DCEM이 함께 진행했다. 고명진 수원중앙침례교회 목사 등이 동행했다.



2024 삿포로신학교 신학생 모집

일본 선교의 최전선에서 헌신할 제3기 신학생을 모집합니다. 졸업후 각자의 적성과 진로희망에 따라 일본 선교를 이끌 지도자, 교회 개척자로 활약할 길이 제공됩니다. 일본 선교에 뜨거운 열정을 가진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지원자격
 - 일본 선교를 향한 선교사의 소명을 받은 자
 - 일본어능력시험 N4레벨 이상 자격 소지자 및 입학 전 동 경연을 취득할 의지가 있는 자
 - 4년제 대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
 - 일본국민, 일본거주 외국인으로 응시가능
 - 연령제한 : 45세 이하
- 전형방법
 - 1차 서류 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대면 또는 화상면접
 - 제출서류는 홈페이지 모집요강을 참조 (sapporobible.college.kr)
- 접수마감
 - 2023년 7월 31일(월)
- 입학 전형비 및 등록금
 - 입학전형비 : 5천엔
 - 등록금 : 180만엔/년(기숙사, 식사비 일체 포함)
 - 여의도순복음교회가 신발, 추천하여 입학하는 학생에게는 등록금 전액이 장학금으로 지급됩니다.
- 입학문의
 - SAPPORO BIBLE COLLEGE에 관하여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Tel. 02-6181-6572 (여의도순복음교회 선교국)
 - Tel. 02-6181-5061 (DCEM (David Cho Evangelistic Mission))

삿포로신학교 SAPPORO BIBLE COLLEGE
17 Chome 3-11, Minami 8 Jonishi, Chuo-ku, Sapporo, Hokkaido, JAPAN